특공무술의 개발과 발전에 관한 경호사(警護史)적 함의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eukgongmusul focused on Security Service History

김 은 정*

<목 차>

Ⅰ. 서　　론　　Ⅲ. 특공무술의 발전
Ⅱ. 특공무술의 개발　　Ⅳ. 결　　론

<요 약>

특공무술은 은폐된 역사로 인해서 진실이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찾기 위해서 특공무술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구술사(口述史)를 연구방법으로 적용했고, 대외비(對外秘)로 발간된 대통령경호실·육군본부·제27부대·제5특전여단 등의 문헌자료들도 정보공개 과정을 거쳐서 수집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78년 6월 1일에 창설된 특전사 소속 제606부대는, 1978년 7월 2일 대통령경호실에 배속되어 국내 최초의 항공기 대테러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운용되었다. 그리고 제606부대에서는 기존 무술들의 장점을 합한 실전종합무술로서 특공무술을 체계화하였다. 둘째, 특공무술은 경호무도의 특성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제606부대원들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특공부대의 일원으로 특공무술을 개발했고, 이에 특공무술은 개발단계부터 경호무도로서의 특성을 포함하게 되었다. 셋째, 제606부대의 특공무술은 군과 경호실로 나뉘어 발전했다. 군에서는 제5공수특전여단에 의해 새롭게 구성한 국방무술로 보급되었고, 대통령경호실에서는 기존에 수련하던 합기도를 특공무술로 교체하여 보급되었다.

넷째, 특공무술의 개발과 발전은 정치적인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공무술을 개발한 부대는 당시 정치적인 권력이 막강했던 경호실의 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이후 부대의 명칭이나 활동의 변화도 한국 내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이 같은 점은 제606부대가 제27부대로 개칭한 뒤에 차기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경호업무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주제어 : 특공무술, 경호무도, 경호사, 구술사, 무도사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강사

I. 서 론

현재 경호 관련 학과 및 단체에서 경호무도(警護武道)수련하는 대표적인 무도 종목으로는 유도·태권도·합기도(또는 용무도)·검도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수련 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무도에 경호의 목적을 부여해서 경호무도로 접목하는 방식이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네 가지 무도에 형성되어 있는 경호무도와 관련된 인식은 대중적인 기반에 의해 구성된 측면 외에도 경호사(警護史)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1963년 12월 17일부터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원들이 수련해야 할 무도로 위의 네 종목을 채택했기 때문이다(대통령경호실, 1993 : 193). 그리고 경호무도로서 특공무술에 대한 인식은 대통령경호실의 무도였던 합기도가 1988년에 특공무술(特攻武術)로 전환하면서부터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공무술이 경호실의 기본무도로 수련된 것이 알려지면서 특전부대 뿐만 아니라 경호 관련 협회나 학과 등에서도 경호무도로 홍보되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1970년대 말 무렵, 항공기 대테러를 위해서 최강의 종합무술을 개발하라는 지시가 경호실 배속 제606부대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특공무술은 장기간 동안 대중적인 수련인구를 가지고 성장한 기존 무도들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을 위한 국방무술의 성격뿐만 아니라, 경호실 배속 부대의 무술이라는 경호무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특공무술의 성격이 대통령경호실에서 특공무술을 경호무도의 하나로 채택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호무도관련 선행연구들은 유도·태권도·합기도·검도를 접목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특공무술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대통령경호실 소속 부대원들이 개발했던 특공무술의 역사에 대해 무도관련 협회들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정체성 부분에 흠집이 났고, 감춰진 역사적 사실들에 의해 특공무술이 경호무도로서 합당한 논리와 정당성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감춰진 역사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구술사* 자료와 각종 대외비 자료들을 수집하여, 대통령경호실 소속 부대의 창설로부터 시작한 개발 과정을 비롯해서, 이후 군과 경호실로 나뉘어 발전된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특공무술에 의미를 경호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 과거의 기억을 역사연구에 적용한 구술사(口述史, Oral History)를 통해 당시 특공무술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가 직접 구술 자료를 수집하였다.

** 본 연구는 특공무술이 경호무도를 대표한다는 논의가 아님을 사전에 밝혀두고자 한다.

II. 특공무술의 개발

1. 특공부대의 창설

특공무술의 개발은 1970년대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74년 8월 15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에게 저격당하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실의 업무는 군대와 조직적으로 연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이후에는 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대통령경호실에 합법적으로 헌병33·수방사55·특전사66*** 등의 군대가 들어와서 경호와 경계 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는 당시에 청와대의 경비업무를 경찰에서 전담하였으며, 북한의 남파간첩인 김신조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철조망 한 줄로 청와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1977년 10월 13일, 스페인 마요르카(Mallorca)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로 향하는 루프트한자(Lufthansa)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82명과 승무원 5명을 팔레스타인 테러부대가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협상을 거부한 독일 정부는 10월 18일에 서독의 특공부대인 GSG9의 특공대원 28명을 투입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사살하고 인질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했다(조선일보, 1977.10.19). 당시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국내의 일간지에서도 각국의 특공대 현황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는 등 특공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작용했다(조선일보, 1977.10.23; 1977.10.30).

그 후 특공대에 대한 관심은 국가적 위기인 테러를 우려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착안으로 연결되었다. 박 대통령은 인원을 20명으로 직접 편성해서 경호실장에게 항공기 대테러 특공부대의 창설을 극비리에 지시했다. 특공부대의 창설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밀리에 진행했기 때문에, 그 준비는 박정희 대통령·차지철 경호실장·전두환 작전차장보·김택수***** 정보담당관만 아는 기밀상황으로 1년 간 진행되었다. 이

*** 대통령경호실(1990 : 317-318)에 따르면, 제606부대의 전신인 특전사 66대대는 1977년 12월 12일에 창설된 666특공대에서 잠정 편성되었다. 처음에는 20명으로 조직된 후, 1978년 3월 11일에 57명으로 증편되었다. 당시만 해도 666특공대와 대통령경호실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못했다.

**** 오형근의 구술증언. "…헌병 33, 수방사에서 55, 특전사에서 66, 이런 부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육영수 여사 저격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군부대가 들어와서 경호에 참여를 했죠.…(청와대에) 담도 없이 철조망 한 줄로 쭉 둘러쳐가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허술했다고. 근데 김신조 넘어오고 워낙 놀랬잖아. 그 이후부터 그냥 방카들 입고 아주 강화가 된 거지."

들 중 부대창설을 전담하게 된 김택수는 세계 각국의 항공기 관련 자료 수집과 특수 무기, 수류탄, 화약 등을 구입하면서 테러에 대처할 준비를 해나갔다. 무기류를 구비하고 폐비행기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당시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부대 창설 전까지 특공부대원들의 급여와 부대 운영비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자금에서 지급되었다.*

결국, 제606부대는 특전사령부에서 대통령경호실에 작전 배속되었던 제66특전대대로부터 분리하여, 1978년 6월 1일에 한국 최초의 항공기 대테러부대를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김포공항 내의 제606부대에는 부대막사와 종합훈련장이 설치되었고, 고도의 특수 전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부대에 특공교육대를 세워 교육생도 배출했다. 이때 개발한 헬기레펠과 건물레펠, 특공무술 등이 보급되어서 군의 전투력 증강에 기여했다고 평가되었다(육군특수전사령부, 1999 : 560-561).

2. 특공무술의 개발 과정

제606부대는 대테러 특공작전을 수행하고 대테러 첩보수집 및 분석 연구를 최초로 실행한 부대였다(대통령경호실, 1990 : 317). 창설 이후 제606부대의 부대원들은 110명까지 늘게 되었으며, 주로 특전사의 무도 유단자들을 선별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다. 당시 경호실에서는 유도·태권도·합기도·검도를 수련했고, 군대에서는 태권도가 전군에 보급되었으며, 특공부대의 군소속인 특전사에서는 특전무술이라는 명칭으로 총검술 등을 훈련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대테러 특공작전에 투입될 제606부대에는 경호실이나 군에서 수련하고 있는 무술보다 더욱 실전적인 공격술, 방어술, 응용 기술이 추가된 무술이 필요했다.

기존 무술들은 동작이 크고 일정한 형식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외부와 차단되어 획일적이며 협소한 항공기 공간에 맞는 특수성을 고려한 무술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1978년 10월 6일, 제606부대는 '실전무술개발'을 지시받게 되었고(대통령경호실, 1993 : 307), 이에 각 무도들의 최상 기술들만을 선정하기 위

***** 김택수(金宅洙)는 1939년 충남에서 출생하여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978년 6월부터 1980년 5월까지 제606부대의 초대 부대장으로 특공무술의 개발에 관여했다. 예편 후에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 김택수의 구술증언. "박대통령이 우리나라도 KAL(대한항공)이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Lufthansa납치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해결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설치해야겠다.…박대통령이 차지철씨에게 메모를 썼어.…난 봤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친필로…종이에다가 딱 적어가지고 편성까지 해서 딱 20명이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일 년 동안은 아무한테도 얘기 안하고 박대통령, 차지철, 전두환,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 거지…조중훈이가 많이 협조를 했는데…그 때 박대통령이 개인 사비, 사비라기보다도 비밀자금, 그걸 별도로 제606부대한테 줬다고, 수당을. 그 수당은 경호실 자금도 아니고 박대통령이 개별적으로 줄 수 있는 20명.…박대통령 (개인)경비가 쓰이니까 (인원)늘리는 걸 굉장히 억제를 했다고, 차지철씨가.…"

해서 세계 각국의 무도에 관한 책자를 수집하여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특공부대 전원이 유단자라서 총검술을 비롯한 유도와 태권도 관련 기술개발은 부대 자체 내에서도 가능했다. 그러나 부대원들 가운데 경호실의 무도종목인 합기도를 담당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합기도사범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수옥***을 시간제로 고용하게 되었다. 장수옥은 부대원들에게 합기도를 교육하면서 특공무술의 개발에 일부분이었던 합기도를 담당했다.**** 결국, 특공무술은 김택수의 지시로 번역한 세계 각국의 무도서적, 제606부대원들의 유도와 태권도 기술, 장수옥의 합기도 기술을 종합한 것이었고, 이 기술들의 체계화는 특공무술 교범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리고 1978년 11월 16일에 차지철 경호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연무관에서 특공무술 시범이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 시범을 통해 특공무술의 개발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았지만(제27특공부대, 1988 : 43), 1978년 6월에 창설된 후로 시범일자가 시급하게 결정되어 단기간 내에 급조될 수밖에 없었던 개발 과정에서 짐작되듯이, 특공무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까지 논쟁의 소지가 될 만한 문제들을 남기게 되었다. 현재 특공무술의 개발과 관련된 논쟁은 크게 창시자와 명칭 문제로 양분되어 있다.

우선, 특공무술의 창시자 문제는 부대원들과 합기도사범 사이에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특공무술이 가지고 있는 배경의 특이성을 간과할 수 없는데, 특공무술이 다른 무도와 달리 군부대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도 개인이 창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대가 창설되고 거기에 소속된 부대원들에게 내려진 지시에 의해서 특공무술이 만들어진 것은, 제606부대에서 기존의 무도들을 통합하는 전(全) 경로를 거쳐서 특공무술 체계화 과정을 진행한 부대

---

* 김택수의 구술증언. "주로 특전사에서 무도 유단자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130명을 구상해서 그 부대(제606)를 훈련하기 시작했어요.…그러니까 경호원들이 각 무도를 하게 되었죠. 무도는 원래 무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려다 보면은 말하자면은 종합무술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인제 종합무술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세계 각국의 무도에 관한 책자를 수집했어요. 영국, 미국, 중국 하여튼 쿵푸를 비롯해서 태권도, 무도 사범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외국어로 된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내가 논산 훈련소로 가가지고 어학 영어, 독일어, 중국어 등 우수한 자원을 몇 명을 차출해가지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무도 책을 번역했어요."

*** 장수옥(張水玉)은 대한기도회 소속 합기도사범을 하던 중에, 1978년 7월 1일부터 1980년 10월 31일까지 제606특공부대, 제27특공부대의 무도사범으로 활동했다. 이후 1980년 11월 1일 대통령경호실의 합기도사범으로 임용되었고 2002년 3월 31일 퇴직하였다(대통령경호실의 개인 신상카드를 참고).

**** 김택수의 구술증언. "…당시 장수옥이라고 합기도 8단인데 이 사람이 실기면에서 아주 우수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보수를 줘가면서 사범으로 뒀어요…", 오형근의 구술증언(2004년 9월 8일). "그 때 경호실장이 야, 부대 창설하고 대통령 각하한테도 시범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준비해라 하니까, 지휘관(김택수)이 급했지. 그래 그럼 무도사범도 하나 구해보자 해가지고 장수옥씨를 누가 소개해서, 와라해서 나같이 고용한 게 아니고 시간제로 들랑날랑 하면서 거기 참여를 했다고 그럽디다."

원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군인인 부대원들과는 달리 직업 무도사범 자격으로 참여한 합기도사범에 의해서 합기도 기술이 적정 수위를 넘어선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합기도사범이 특공무술의 기술을 재현(再現)하는 모델 역할을 담당하면서 생긴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특공무술과 관련된 최초의 교재가 합기도사범에 의해서 발간되었다는 것을 토대로, 특공무술 개발 당시 합기도사범의 역할에 대한 확대해석이 가능한 여지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증은 제606부대에서 1979년도에 이미 앨범 다섯 권 분량의 사진을 찍어서 교범의 발간 직전에 있었지만, 예산문제와 10.26사태로 인해 발간되지 못하고 있던 것을 합기도사범이 장세동 경호실장에게 받아서 발간하였다는 증언을 통해, 합기도사범의 역할에 대한 확대해석의 가능성이 희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특공무술' 명칭과 관련된 논쟁이다. 제606부대원들은 무도 개발을 논의하다가 '특공작전에 쓰는 무술'이니까 특공무술로 결정한 것이 명칭 사용의 계기였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주장은 제27특공부대(1988)의 『부대사』, p.43에 기재된 내용이며, 차지철 경호실장의 지시로 부대명칭을 인용해서 특공무술이라고 명명했다는 주장이다. 이 중 전자(前者)가 타당성을 가진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부대사』의 저술년도가 1988년이라는 점에서, 당시 합기도사범이었던 장수옥이 경호실 무도사범으로 재직 중에 특공무술과 관련된 내용에 영향을 미쳤거나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부대사』의 내용 중 특공무술과 관련된 상당 부분이 장수옥의 자서전(2002)과 같으며, 장수옥 개인에 대한 언급이 많고, 특공무술과 관련된 내용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 과정으로 볼 때, 특공무술은 어느 한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부대 차원에서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에 제606부대원들 중에서는 누구도 나서지 못했고, 특공무술과 관련되었던 제606부대의 부대원들이 계속 다른 부대로 옮겨가게 되면서

***** 김택수의 구술증언. "…급부터 시작해서 유단자까지 되는 과정을 소위 체계화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앨범을 다섯 권 (분량)을 사진 찍고…그러니까 박대통령 시해당할 그 당시에는 앨범이 다 만들어졌다니까.…전(두환) 대통령 때 장세동씨한테 내가 줬다고, 이거(앨범)를. 내가 보고하니까 장세동씨가 가지고 있다가…경호실용으로 발간하겠다고 하던 차에 안 되었고, 안 된걸 (앨범)자료를 가지고 장수옥이가 내꺼다, 한 거야"

* 김택수의 구술증언. "…전에는 순수한 무술을 결합시키지 않고, 흉기를 가지고 특전작전을 하는 그런 (특전)무술로 명칭이 되다가 606부대에서 특공무술이라고 해가지고 그거(특전무술)보다 더 순수(특공)무술이 가미된 그런 무술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이걸 아까 말한 대로 일반 장교들 중에서 우수한 장교를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하니까, 특전보다는 특공이란 게 더 복합적으로 포함도 되었고 하니까 명칭을 그렇게 바꿔 버린 거지.…특수 공작이라든가 특수, 이런 무술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지. 이건 태권도도 아니고, 유도도 아니고, 검도도 아니고, 이걸 다 종합해서 우리가 특공작전에 쓰는 무술이라고 해서 특공무술이라고 한 거지.…(명칭을 하사받은 적은) 없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할까 하다가 특공무술로 내가 정한거지. 종합무술인데 이걸 뭘로 할 것이냐, 이래서 이제 장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특공무술이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한 거지."

주인(主人)을 잃어버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제27부대와 제5공수여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보급된 특공무술의 발전은 결국 대통령경호실로 연결되었고, 이에 경호무도로서 특공무술이라는 그 본연의 명맥을 잇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III. 특공무술의 발전

1. 군에서의 특공무술

제606부대의 특공무술 시범은 1978년 11월 16일에 있었던 최초의 연무관 시범 이후로, 대통령과 경호실장이 배석한 비공식적인 자리부터 군과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까지 연이어 등장하였다.

<표 3-1> 제606부대 특공무술 시범

일 시	장 소	참 관 인 원
1978년 11월 16일	청와대 연무관	경호실장(차지철), 작전차장보(노태우), 작전부대장
1978년 11월 28일	특공구국관	1여단장, 기도회장
1978년 12월 1일	특공구국관	공군참모총장(주영복)
1979년 2월 3일	청와대 연무관	작전차장보(김복동), 작전부대장
1979년 6월 12일	청와대 연무관	박정희 대통령 외 60명
1979년 6월 21일	청와대 연무관	해병대 99여단(저도 근무자)
1979년 6월 26일	특전사 정병관	특전사령관, 각 여단장

자료 : 제27특공부대(1988 : 44)

제606부대의 특공무술 시범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능숙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보는 사람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공무술에 대한 찬사는 '특공교육' 과정을 통해서 1978년 11월에 특공 1기생들의 배출로 연결되었고, 교육받은 요원들에 의해 보급이 확대되었다. 특히, 제5공수여단에서는 특공무술 교관요원 훈련을 위해서 20여명의 태권도 요원을 김포공항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특공무술이 흡족한 반응을 얻자, 차지철 경호실장은 일반 군부대에도 특공무술을 보급시키라고 지시했다. 당시 대통령경호실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었던 특전사령부는 특공무술을 특전사에 보급하기 위해서 7개 여단 중 제5공수여단장인 장기오**

** 장기오(張基梧)는 육사 12기로 1978년 10월 3일부터 1981년 3월 1일까지 제5공수여단의 여단장으로 있었고, 당시 계급은 준장이었으며, 제9대 총무처 장관을 역임했다.

에게 책임을 부여했고,* 보급 임무를 맡은 장기오는 특공무술을 군의 성향에 맞춰서 새롭게 구성하고자 했다. 즉, 기존 시범위주의 특공무술에 만족하지 않고 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무술개발을 추진했던 것이다. 결국, 당시 대대장이었던 이정균**** 중령에 의해 제606부대의 특공무술은 시범에 화려한 면보다는 실제 장병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특공무술로 재구성되었고, 초창기 명칭은 '특전무술'과 '특공무술'을 공동으로 사용했다(특전사령부, 1980 : 157-183).*****

'특전무술'과 '특공무술'의 명칭이 공동으로 사용된 과도기적 상황은 당시 제5공수여단에서 제작한 시범 자료집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제5공수여단의 『특전무술』자료집은 1.시범목적 2.시간계획 3.각종무술 및 투기소개 4.분석비교 5.군대무술방향 6.특전무술 7.결론('특공무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자료집이 시범의 순서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으며, 특히 신(新) 무술의 개발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방향이 설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공무술의 보급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5공수여단에서 새롭게 무술 개발을 시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606부대의 특공무술이 화려한 기술들로 구성된 시범 위주의 무술이었던 점, 그리고 전군에 보급할 때 군대무술로서 실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시행했다는 점이 타당성을 가진다.

이는 자료집에서 합기도·유도·검도·봉술·권투·킥복싱의 일반 투기종목과 북한군의 격술(擊術)을 대상으로 하여, 각 무술들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특전무술의 필요성을

---

* 김택수의 구술증언. "…특전사령관(정병주)이 장기오 장군한테 임무를 줬다니까. 임무를 줬고 그러니까 나한테 장기오 장군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 5공수요원들을 우리한테 위탁을 시켜가지고 위탁교육을 받은 거지. 차지철씨가 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좋은 무술을 일반 군에도 보급시켜라 이런 지시를 했지, 차지철씨가.…7개 여단 중에서 장기오 장군이 서울에 근교에 있고, 무술을 굉장히 잘했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맡아서 보급을 하시오' 하니까…"

**** 이정균은 육사 23기로 1980년 9월 13일부터 1981년 12월 30일까지 제5공수여단의 제25특전대대장으로 있으면서 특전무술(특공무술)의 개발에 실무를 담당했다.

***** 『부대사』내용 중에서 5공수여단의 무술개발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1980년 9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2개월간 특전사령부 지시에 의거 새로운 무술연구에 착수하여 25대대에 의해서 특전무술을 개발. 1980년 11월 21일 사령관 및 육본 참모부장, 각 여단장을 모신 가운데 시범을 실시하여 전시 공격형 군대무술로 인정받았으며, 특전사 이하 여단 교관요원에 대한 집체교육을 2차에 걸쳐 실시하여 이를 보급하였다(특전사령부, 1980 : 162)."

* 이정균의 구술증언. "맨 처음에는 특전무술로 시범을 한 두 번 하다가 내가 이름을 바꿨다고. 왜냐하면 특전무술하면 특전사 직계 여단, 그 사람들만 운동을 하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서 내가 일반부대도 있고 특공부대가 있고, 수색부대도 있고, 이런 데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아니냐 해서 특공무술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장기오 장군이 오케이해서 바꿨지. 그 때가 육군본부 시범 전이지…"; 장기오의 구술증언(2004년 10월 5일). "…특전무술이 곧 특공무술입니다. 100%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특전사이기 때문에 특전무술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육군에서 이것을 육군무술로 채택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육군이 할 때는 특전무술로 하기에는 남의 무술을 도입한 것 같이 생각되니까. 육군에 특공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특전사 비슷하게. 육군에 특공부대가 있으니까 그 부대에 맞는 명칭으로 특공무술이라고 제가 명칭을 결정했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특전무술』에서 북한군에 대응할 수 있는 무술이 요구되어, 시범에 선보일 '특공무술'이 전장무술로 가장 적합함을 결론에 제시한 점을 통해서 명칭을 공동으로 사용했던 것이 확인된다(제5특전여단, 1980 : 36). 그 후 1980년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제5공수여단은 각 여단 교관요원의 위탁교육을 실시했다(특전사령부, 1980 : 164). 제5공수여단에서는 태권도 위주였던 군대무술을 특공무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특공여단·특공연대·수색대에 우선적으로 보급하였고, 이어 각 특수부대에도 특공무술을 전파했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특공무술의 창안자로 장기오를 지칭하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조선일보, 1986.12.4), 이를 통해 당시 제5공수여단의 특공무술 보급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제5공수여단의 특공무술은 1981년 4월 22일에 육군본부에서 참모총장과 장성들 앞에 대대적으로 보인 시범으로 인하여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전군에서 태권도를 군대무술로 훈련하고 있었지만 제5공수여단의 특공무술이 단기간 숙달 가능함은 물론이고, 실전에서도 활용가능성이 뛰어난 새로운 국방 무술로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특공무술을 정식 육군무술로 채택하기 위해 실시된 시범에서 군인들은 도복이 아닌 전투복을 그대로 착용했으며, 1부에는 각종 무술의 특징과 장단점 분석, 2부는 특공무술의 실제 적용으로 구성하였다.** 제5공수여단의 특공무술은 육군본부 시범으로 인해 '전군 보급'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전국의 우수 장교들의 교육을 통해서 특공무술에 군 보급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82년 장기오의 부하였던 이원익에 의해 특공무술이 미국(Taxas Austin)에 까지 보급되기도 했다.***

제5공수여단에서 군에 보급한 특공무술은 제606부대가 각 무도의 장점을 모아서 경호상황에 알맞게 구성한 것을 군의 환경에 맞도록 새롭게 변형한 것이었다. 그리고 제606부대의 특공무술과 달리, 제5공수여단의 특공무술은 장병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기술체계의 간소화·태권도 비중 증대·전투복 착용 등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군에 보급된 특공무술은 제606부대의 특공무술을 모태로 하고, 전장무술에 특징을 살려서 제5공수여단이 새롭게 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1981년 4월 22일에 열린 육군본부의 특공무술 시범 원고를 참고했다(이정균의 개인소장 자료).

*** 장기오의 구술 증언. "사단에 있는 수색부대에 그 사람(이원익)을 몇 개월 동안 (특공무술을 배우라고) 보냈어요, 제대하기 몇 개월 전에. 니가 다 한(배운) 다음에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에 가서 미군들을 한 번 가르쳐봐라 해가지고.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미군들이 태권도보다 특공무술을 더 재미있어한다 이거야. 그 복장(군복) 그대로 입고 하니까.…구두로, 너 특공무술 초단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원익이) 미국으로 갔데요.…미국서 특공무술 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거기서 시범을 하는 걸 봤는데 많이 보급 되었더라구요."

**** 특전사(1982),「이정균 중령 행사 앨범」. 1981년 4월 22일에 육군본부에서 열린 특공무술 시범의 사진과 원고를 참고했다.

2. 대통령경호실에서의 특공무술

1978년 6월에 창설되었던 제606부대 김택수 부대장의 후임으로, 1980년 5월에 오형근이 임명되었다. 오형근*****은 부대장 임명과 동시에 제606부대의 명칭을 제27부대로 개칭하였다. 하지만, 제606부대에서 제27부대로의 개칭은 단지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제606부대가 표방한 대테러부대의 창설목적은 제27부대로 연결되었지만, 제27부대의 역할은 경호업무의 본격적인 수행이라는 큰 변화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살펴본 군의 특공무술 발전 과정에서, 특공무술의 보급에 제606부대에서 개칭한 제27부대의 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즉, 제606부대의 특공무술은 군 보급을 위해서 제5공수여단에 임무가 부여되었고, 제27부대는 경호업무에 치중되어 제606부대의 특공무술 보급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27부대의 경호업무 수행 배경으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전두환과 제606부대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제606부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차지철이 피살된 10.26 이후, 제606부대는 유지를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져서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해체 직전의 제606부대가 경호실로 들어가게 된 계기는 바로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의 경호 때문이었다. 대통령경호원들은 최규하 대통령을 경호해야 했기 때문에, 전두환의 경호를 맡을 수 없었고,** 그러던 차에 제606부대가 전두환의 경호를 맡게 되면서, 제606부대에 경호업무가 부여되었던 것이다(대통령경호실, 1993 : 308). 물론 전두환이 군인 출신으로서 제606부대의 창설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제606부대의 존재와 부대원들의 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이 작용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제606부대원들은 군인 신분이었지만 사복을 입고 근무했고, 1979년 12.12사태 이후 제606부대원의 절반 정도는 경호실에 남고, 나머지는 김포공항에 주둔하였다. 경호실에 있었던 부대원들은 본격적인 경호업무로 전환하여, 대통령·안기부장·보안사령관 등의 숙소 경호를 수행하게 되었다. 즉,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일 때 경

***** 오형근(吳亨根)은 육군사관학교 22기이고, 제606부대장이었던 김택수의 후임으로 1980년 5월부터 제27특공부대에 부임했다. 육군소장으로 예편 후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 오형근의 구술증언. “우리(27부대)는 군부대지만 임무로 보면은 군대 본질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경호)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특공무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는 노력을 전혀 안했어요. 우리는 할 위치도 아니었고, 그것이 군에 보급된 것은 전적으로 5공수의 공이예요. (우리부대의 특공무술을) 5공수에서 배워가지고 장기오 장군이 전 여단 요원을 (교육)시켰으니까.”

** 김택수의 구술증언. “새로운 경호임무에 대한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경호임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거지.…606부대가 없었으면 전 대통령이 합수본부장인데 합수본부장의 경호를 어떻게 수행하겠어요, 대통령이 있는데. 경호실 요원들은 대통령을 경호해야지 합수본부장 경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606)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된 거고…”

호를 하던 제606부대가 특전사로 원대 복귀하면서 경호실 배속에서 빠졌다가, 1980년 5월에 오형근이 부대장이 되면서, 제606부대가 제27부대로 명칭을 바꾸고 경호부대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것이다.

제27부대는 1980년 5.18 등으로 인한 혼란기에 대통령경호실로 들어가서 전두환 대통령 참관 하에 특공무술 시범을 보였다. 이 시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형근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시범을 보였던 경력이 있는 제606부대의 전(前) 합기도 사범 장수옥을 불렀다. 시범 후에 오형근은 장수옥을 대통령경호실에 추천했고, 1980년 11월 1일에 장수옥은 대통령경호실의 합기도사범으로 채용되었다.*** 그리고 1963년 경호실 창설 당시부터 수련했던 유도·태권도·합기도·검도 가운데, 1982년 3월 31일에 검도가 폐지되었다(대통령경호실, 1993 : 193).

그 후 경호실에서 합기도는 기본무도로 수련하고, 태권도와 유도는 개인적으로 숙달하여 1년 내에 경호원들을 전원 유단자화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대통령경호실, 1993 : 504). 한편, 제606부대에서 교범발간을 위해 준비했던 특공무술 앨범은 김택수에 의해 장세동 경호실장에게 전달되었고, 장수옥은 경호실의 합기도사범이 된 후에 장세동에게 그 앨범을 받아서 경호실의 합기도 교육을 특공무술로 대체해 나갔다. 그리고 1988년 7월에 사단법인 대한특공무술협회를 조직하여 특공무술의 단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자, 대통령경호실에서는 1988년 9월 2일에 합기도 대신에 특공무술을 공식적인 기본무도로 채택하게 되었다(대통령경호실, 1993 : 193).

특공무술은 개발 당시부터 대테러상황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경호무도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합기도 대신에 대통령경호실의 기본무도로 채택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본무도의 변화를 통해 특공무술이 경호무도로 제 자리를 찾는데 있어 경호실 무도사범으로 있었던 장수옥의 영향력도 컸다고 본다. 그리고 군에서의 보급과는 달리 대통령경호실의 특공무술에 합기도와의 유사성이 더욱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합기도사범으로서 제606부대 때부터 특공무술의 개발에 관여했던 장수옥의 활동이 특공무술의 경호실 보급에 미친 여파를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대통령경호실에 특공무술의 보급을 통해 경호무도로서 인식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장수옥의 활동에 대해, 특공무술과 관련된 진실왜곡이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 점과는 별개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비록 장수옥이 특공무술교본(1992)을 출판하고, 자서전(2002) 내용에 특공무술을 소위 '장수옥이 창시한 무술을 대통령이 인정한 것'으로 부각시키면서 특

*** 오형근의 구술증언. "80년도 6,7월쯤 되나? 7,8월 쯤 되나? 내가 정식으로 우리부대 사범으로 (장수옥을) 채용했어요. 근데 그것도 엉터리지. 명령이 난 것도 아니고, 내 지휘관 구두로. (부대에서)사범 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부대 운영비에서 사범 월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우리(제27부대)가 경호실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장수옥 사범을 청와대에 사범으로 추천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때 그 사람이 들어가서 80년도 가을 쯤 들어갔는가? 그래서 작년까지 한 23년간 있었죠.…"

공무술의 정체성에는 큰 흠집을 냈지만, 그 밖의 공적(功績)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인 사실의 한 부분으로서 개별적인 해석을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특공무술의 개발과 발전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과 그 의미를 경호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특공무술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대테러부대의 무도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78년 6월 1일에 창설된 제606부대의 부대원들은 기존 무술에 장점들을 정리하여 실전 종합무술로서 특공무술을 체계화시켰다.

둘째, 특공무술은 경호무도의 특성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제606부대원들은 당시 대통령경호실 소속 특공부대의 일원으로 특공무술을 개발했고, 이에 개발 단계부터 경호무도로서의 특성이 배제될 수 없었다.

셋째, 제606부대의 특공무술은 군과 경호실에서의 보급으로 나뉘어 발전했다. 군에서는 제5공수특전여단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국방무술로 보급되었으며, 대통령경호실에서는 기본무도였던 합기도가 특공무술로 변경되면서 보급되었다.

넷째, 특공무술의 개발과 발전은 정치적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공무술을 개발한 부대는 당시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했던 대통령경호실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후 부대 명칭이나 활동의 변화 등도 한국 내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제606부대에서 개칭된 제27부대가 정권교체기에 차기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면서부터 그 역할이 경호업무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아직도 특공무술은 창시자·명칭·기술 문제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보안이라는 이유로 베일 속에 가려졌던 제606부대의 특공무술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의 희생양으로 퇴색되어, 경호무도에 상응하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특공무술의 정체성에 깊게 관여되었기 때문에 사실 검증에 귀추를 모았고, 이를 통해 특공무술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는 유도·태권도·검도를 수련하고, 제606부대의 특공무술 개발 취지와 흡사한 실무위주의 '경호술기'를 적용하고 있다. 특공무술은 이제 대통령경호실에서 수련하지 않기 때문에 경호사 속에서 회고되겠지만, 대중들에게 특공무술은 아직도 경호무도와

연관된 인식이 남아 있고, 더욱이 많은 수련인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호무도로서 특공무술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때 경호실 담당자와 만나서 의견을 피력한 뒤로, 대통령경호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공무술 역사 부분에 대한 서술이 변경된 사례가 있었다(김은정, 2005 : 311). 기존에 기득권 세력의 영향으로 날조되었던 특공무술에 기록을, 구술증언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혼재된 특공무술의 인식 변화에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게 된다. 앞으로 경호사의 비화(秘話)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그 역사적인 의미를 조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은정(2005).「경호무도로서 '특공무술'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대학원.
_____(2005).『구술사 : 방법과 사례』. 서울 : 도서출판 선인.
김택수 구술증언(2004). 9.9.
대통령경호실(1990).『대통령경호실 법령·조직변천사』.
_____(1993).『대통령경호30년사』.
대한특공무술협회(1992).『특공무술』. 서울 : 도서출판 무림.
오형근 구술증언(2004). 9.8.
육군특수전사령부(1999).『육군특수전발전사』.
이정균 구술증언(2004). 11.16.
장기오 구술증언(2004). 10.5.
장수옥(2002).『영원한 사부』. 서울 : 태일출판사.
제27특공부대(1982).『대테러 특공작전』.
_____(1988).『부대사(Ⅰ)』.
제5특전여단(1980).『특전무술』.
조선일보(1977). "각광받는 특공대". 10.30 : 4.
_____(1977). "베일속의 특공대". 10.23 : 3.
_____(1977). "여객기 납치범의 문제 -서독 특공대의 쾌거를 보고-". 10.19 : 3.
_____(1986). "군 특공무술 창안. 대쪽 교인, 장기오 총무처장관". 12.4 : 2.
특전사(1982).「이정균 중령 행사 앨범」.
특전사령부(1980).『부대사』.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eukgongmusul focused on Security Service History

Kim, Eun-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progress about Teukgongmusul as bodyguard martial arts focused on security service history through the meaning of its development and expansion. This study used secret materials from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military service headquarters and special merit unit in Korea, and also used interview materials by oral history.

For the above task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consideration about the background and circumstances of Teukgongmusul when it was developed in 1970s. No.606 special merit unit's soldiers who worked i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Korea organized Teukgongmusul. Secondly, consideration about the meanings of Teukgongmusul presented through its development and expansion process. Teukgongmusul was bodyguards' martial arts which was based on Army's martial arts in 1970s. For this reason, Teukgongmusul now has the perception as Bodyguard Martial Arts. Thirdly, consideration about the expansion process of Teukgongmusul when it was adopted in Army and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Korea. In 1970s special merit unit was included i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Korea where Teukgongmusul was developed. Afterward Teukgongmusul was expanded in two different ways which were Army and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Korea. In Army Teukgongmusul was expanded by no.5 special merit brigade and was expanded by Hapkido master who was worked as martial arts instructor for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in Korea. Fourthly, the historical progress of Teukgongmusul as bodyguard martial art was influenced by the political situation.

Key Words : Bodyguard Martial Arts, Teukgongmusul, Security Service History, Martial Arts History, Oral History